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가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8-4745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이수효: 797-8200)
제 목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시민 신문고(辛問鼓)」 개최
날 짜 1997. 3. 12. (충족)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시민신문고(辛問鼓)" 캠페인 돌궂날
시민 100여명 발언—정치권의 자성 촉구 / 부패방지법 제정하라

3월 12일, 오늘도 국회 앞(장기신용은행)에서 12:00~17:00까지 진행합니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1997년 3월11일(화) 오후 12:00~17:00까지 국회 앞(장기신용은행)에서 '부패추방을 위한 신문고(辛問鼓)를 울려라' 가두 캠페인 이틀째 행사를 벌였다.
2. 또한 참여연대는 3월 11일 조간신문에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개혁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한보비리사건 관련,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광고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지 못하면 나라를 뿌리채 흔드는 부패를 막을수 없기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특별검사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온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보낸 한보사건 철저한 규명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동감하는 내용의 격려편지와 전화가 참여연대 사무실로 쇄도하였다. 그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매서운 질타와 분노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3. 부패추방 신문고 가두 캠페인 돌궂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부패추방 신문고를 크게 두드리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선 시급히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4. 오늘 캠페인 행사에는 특히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 단장 권진관 교수(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신문고 옆에 텐트를 치고 결연한 의지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별첨자료 : 3월 11일 시민발언 요지 및 시민의견문 1부

○ 3월 11일 시민의견 개진 요지

- 이 의견은 참여연대에서 시민발언을 녹취해 정리한 것의 일부입니다.

여의도를 지나던 한 대학생 (영등포구 여의도동)

깨끗한 정치를 바란다.

황장선 (은평구 신사동)

참여연대 열심히 싸워라.

양성준 (관악구 봉천동 거주)

TV 청문회 당연한 건 왜 안하나.

대학생 이재원 (은평구 홍제동)

부패추방 없이 신진국 안된다.

정치인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짐승의 행동으로 인간대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약사 노수진(용산구 남영동 거주)

문민정부에 조그만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

군사정권과 차별된 모습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제발 보여달라.

직장인 최민섭 (강남구 삼성동 근무)

민의를 귀기울이는, 민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들을 국민들은 원한다.

진정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학원강사 고연환 (성동구 구의동)

눈이 있지만 보고싶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고 싶지않은 일들 뿐이다.

하지만 할 말을 해야 겠다. 빨리 부패방지법 만들어 실행하라

학생 정현근 (성북구 안암동 거주)

부패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언제쯤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나!

대학원생 조정상 (관악구 봉천동 거주)

김현철을 수사하라.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귀를 열고 들으라. "부패방지법 제정하라!"

외환은행 근무 박준완 (서대문구 홍제2동 한양아파트 거주)

한보사태, 공직자들의 부패 뇌물 사건 등이 발생할때마다 삶의 의욕이 뚝뚝 떨어진다.

제발 보통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라

주부 이임주 (과천시 부림동 거주)

도대체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수익원의 뇌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은자들이 아직도 국회에 버젓이 앉아있다니.....